

“넌 위해 기도하네”

서울성모병원

환자 소개

<개인정보>

- 성명: 김OO (F/25)
- 종교: 천주교 진단명: 간암, 척추 전이
- 과거력: 만성 B형 간염
- 입원 경과: 2013년 5월 S 병원에서 진단 받고 간동맥 색전술, 경구 항암치료 약물 복용하였으나 질병 진행하고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 심하여 치료 중단하고 통증 조절하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으로 입원
- 호스피스 병동입원:
 - 1차 2014. 9.25. ~ 2014.10.15.
 - 2차 2014.10.31. ~ 2014.11. 6.

- 3차 2014.11.12. ~ 2014.11.17.

- 임종일: 2014.11.17

<입원시 상태>

- 활동상태: PPS 40% (침상에 기대앉을 수 있는 정도의 수행정도)
- Mental: Alert 식사 - 죽(70g/1끼)
- 배뇨 및 배변: 4~5회/1일(1회시 200cc) 배뇨 불편 없음. 1회/2일 갈색의 정상으로 배변
- 피부: 다리 부종 있으나 피부 손상은 없음
- 활력징후: 혈압 101/66mmHg, 맥박 97회/분, 호흡 14회/분, 체온 37.0

진료 부분

<병력>

2013. 05. 간암 진단
 2013. 05. ~ 2014. 06. 간동맥 색전술 7회 시행
 2014. 06. ~ 2015. 07. 경구 항암제(소라페닙) 복용, 부작용으로 중단
 2014. 07. ~ 2016. 09. 가정에서 지냄
 2014. 09. 본원 호스피스 외래에서 증상 관리 (4차례) 받다가 입원

<주 증상에 따른 진료과정>

첫 번째 입원: 통증
 두 번째 입원: 의식 저하

세 번째 입원: 임종과정

통증 (사정)

- 허리 통증 및 좌측 다리 저림
- 3번째 요추 골절 및 척수 압박, multiple 척추 전이로 인한 bone pain, 신경병성 통증
- 통증 조절 약제: Fentanyl patch 100mcg/h, Oxycontin tab, 80#2, PRN) Ircodone tab, 5mg(1회)

(치료 계획)

- fentanyl patch, oxycontin 중단 후 주사제

- 모르핀으로 변경하여 통증 조절 시작
- 부가 진통제 ketamine, ketorac을 시작, 용량 증량
- 통증 조절 목적의 요추 부위 방사선 치료 5회, nerve block 시행

(반응)

- 방사선 및 시술 직후 통증 감소

의식 저하

(사정)

- 지속적으로 수면하는 모습으로 입원 하루 전부

터 식사 못함. 입원 전 속효진통제 쓰지 않음

(치료계획)

- 전해질 불균형 확인(고칼륨혈증 7.5mEq) 하여 교정
- 간기능 저하로 인한 간성 뇌증으로 평가
- 통증 재평가를 통해 fentanyl patch 중단 후 진통제 용량 감량

(반응)

- 칼륨 수치감소하며 기력저하는 지속되었으나 의식 회복하여 식사 가능해짐
- 퇴원 후 세 번째 입원 시 임종

간호 부분

<간호학적 진단>

종양과 관련된 통증

(주관적, 객관적 자료)

- 허리, 다리가 너무 쭈시고 저려요. 배가 팽팽하고 빠근하고 불편해요
- 뼈 전이 있으며, 복부 초음파상 다량으로 복수로 복부 팽만감 있음
- 통증 평가 시 최고 통증 9점임

(증재)

- 움직일 때 통증이 증가하여 예방적으로 속효성 진통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교육
- 복부팽만감 감소를 위해 복수를 배액
- 진통제 투여되는 동안 불안감 표현하는 환자가 평소 아이들을 좋아했다는 것을 파악하여 약물 투여 시 휴대 전화에 있는 아기 사진을 보여주며 관심을 전환

(평가)

- 진통제 사용이 하루 5~6회에서 2~3회로 감소
- 통증 점수는 9점에서 평균 1~2점으로 감소

임종 돌봄

(주관적, 객관적 자료)

- 어제부터 못 먹고 계속 자네요. 아프다고 말도 못 하고 가끔 신음만 겨우 냈어요.
- 수면 시간 증가하며 불러도 반응하지 못하고 가래소리 증가하며 임종 징후가 나타남

(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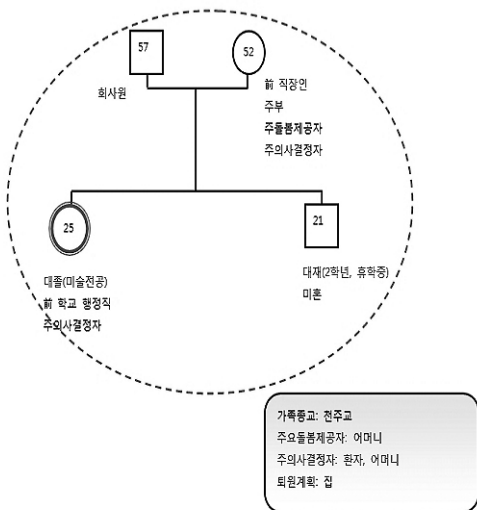
- 임종 준비를 위한 가족 면담을 시행함
 - ①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물어본 후 가족 개인마다의 임종 준비를 확인함
 - ② 임종 과정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관해 설명하여 추후 예측되는 상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③ 임종한 이후 환자가 좋아했던 옷을 갈아입혀 드린다는 것을 설명 후 옷과 영정 사진을 준비하도록 함
 - ④ 환자, 가족이 원하는 장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례절차 및 장례식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환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 근무 때마다 구강간호, 피부 상태 확인, 배변 양상을 확인하여 기본적인 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환자와 가족에게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환자가 좋아했던 음악을 틀어줌
- (평가)
-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이 환자 곁에서 있으면서 임종 과정에 함께 함
- 어머니는 “우리 딸 사랑해, 하늘나라 가서 아

- 프지 마”라고 말하고, 동생도 “내가 잘 할게”라고 말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임종 과정을 받아들이는 모습임
- 환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편안한 표정을 유지하며 임종함

사회복지 부분

<가계도>



-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찾기: 감동과 흥미 찾는 영화 감상
- (결과)
- 자존감: 속내 잘 드러내지 않아 “괜찮아요.” 표현, 다소 억압된 모습 유지
- 무력감 전환: 주변 관계 및 교류 증진, 영화 상영 등을 계획하여 친구초대(성당 교우), 병원 장소 제공(스크린 회의실)하여 영화 감상

모친 소진감 및 가족 간 준비 제한

(사정)

- 대소변 문제로 어머니 외 다른 가족의 간호 및 방문 거부
- 모친의 소진감과 가족 교류 제한에 따른 상호 간 심적 준비 부족

(개입)

- 모친 소진감 완화: 모친의 심신 소진감 상담, 교대 방향 상의 및 관리 유도
- 가족 교류 강화: 가족의 주기적인 방문 격려, 환자 가족과의 교류 시간 유지

(결과)

- 실질적 간호 역할 분담은 부족: 모친이 스스로 감당하고 최선 노력
- 환자 모친의 생각 변화 및 수용: 주 1회 정도 가족 방문 패턴- 지속적인 면담 시행, 요법 및 가족교육 참여.

<심리적 측면>

환자 자존감 저하 및 무력감

(사정)

- 침상에서 배변
- 배뇨하면서 자존감 저하
- 의욕 저하로 홀로 천장을 보거나 잠자면서 무력감 호소

(개입)

-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돕기: 속상한 마음, 힘든 마음 읽어 주고, 존재 가치 인정

원목 부분

<종교적 배경>

환자는 초등학교 시절 가톨릭으로 세례를 받았고 어머니와 동생도 가톨릭 신자였으나, 환자의 아버지는 종교가 없었다.

<원목자와의 만남>

첫 만남

환자를 처음 만난 것은 2014년 9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날이었다. 병실로 들어가자 환자는 맑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자 환자는, “이곳 병실에 입원하니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아요. 근무하시는 의사, 간호사, 봉사자들, 수녀님들. 모두 친절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원목자는 “네, 그렇습니다. 입원하고 계시는 동안 필요하신 것을 요청하셔서 편안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를 나누었다.

잠깐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환자의 종교생활에 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본인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고, 6년 동안 초등부 주일학교 교리 교사를 하였는데 함께 활동한 11명의 교리 교사가 많은 사랑을 주셔서 하느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삶의 기쁨을 체험하였고 6년 동안 봉사한 것이 하느님의 대단한 축복이라고 하며 웃는 모습이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 주님의 기도를 드리며 첫 번째 만남을 마무리하였다.

어머니와의 만남

환자의 어머니는 50대로 대부분의 시간을 환자와 함께 있었으며 온 정성을 다해 딸을 돌보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다가가자, “수녀님, 우리

딸은 몸이 아파도 너무 잘 참아요.” 라고 말하였다. 어머니에게 “그래요? 아픈 것을 잘 참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은 통증을 잘 표현해서 증상 치료를 받는 것도 딸에게 도움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머니는 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딸은 자립심이 강해 20살 때부터 자립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러가지 일을 했다고 하였다. 주차관리, 가방가게, 학원 도우미 보조, 백화점 도우미까지 하였고, 디자인과 졸업한 후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집안에 도움이 되어 주기 위해 부지런히 지냈다고 하였다. 어머니에게 딸이 고생을 많이 해서 마음이 아프시겠다고 말하자, 평소 남에게 손해 끼치는 일은 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며 남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언제나 인격을 존중하며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딸이었다고 말씀하셨다. 올해 몸이 매우 아프면서도 3월, 4월 두달 동안 외할아버지와 친척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도 드렸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1년 6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 딸을 보는 것이 마음이 무척 쓰리고 아프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한참 젊은 나이에 왜 이러한 병을 알아야 하느냐는 어머니의 물음에, 가만히 침묵하며 어머니의 손을 잡아 드렸다.

병자성사와 성체

그날 오후에 다시 병실을 방문하자 환자는 병자성사를 받기를 원하였고 원목 신부님을 모시고 병자성사를 해드렸다. 고통속에 있는 환자에게 사랑의 주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시는 병자성사를 통해 환자의 영적치유, 위로, 평화가 오기를 기도하였다. 환자는 병자성사를 받은 이후 평온하다고 말하며 편안한 모습을 보였다. 며칠 뒤 환자에게 성체를 모시도록 해드렸다. 성체를 모

시기 전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환자는 예수님 말씀에 끝까지 믿음을 갖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하는 가족에게도 “많이 많이 사랑해요.”라는 말을 전했다.

마지막 기도

임종하기 이틀 전 환자는 호흡곤란을 보이며

힘들어하였다. 가족과 함께 환자 곁에서 임종 전 기도를 드렸고 환자는 편안한 표정을 보이며 기도를 듣고 있었다.

마무리

젊은 나이의 환자이고 그 곁을 지키는 어머니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지만, 환자와 가족이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있어 마지막 순간으로 가는 여정에서 영적 평화가 가능하였다.

자원봉사 부분

환자와의 첫 만남은 입원한 지 일주일 이 지난 10월이었다. 환자는 병실 창가 쪽 침상에 있었다. 커튼이 틈새 없이 쳐져 있었고 창문도 굳게 닫혀있었다. 젊은 아가씨로 본인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싫어했고 몸에 손대는 것조차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간병도 거부해 어머니만이 이 곁에 계셨다.

첫 번째 만남은 호스피스병동에서 가족을 위한 교육이 있어 어머니가 교육에 참석해야 해서 자연스럽게 옆에 있게 되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오늘 하늘이 참 예쁘던데 하늘 구경 안 할래요?” 블라인드로 가려진 창문을 보면서 말을 건네니 환자는 궁금해 하는 눈빛으로 머리를 끄덕이며 창문 여는 것을 허락해 블라인드를 걷어 올리니 병실 밖 가을 하늘이 푸르게 펼쳐져 있었다. 환자의 두 눈이 커지며 경쾌한 목소리로 “정말 예쁘네요.”라며 말했고 웃는 모습이 푸른 하늘처럼 맑게 빛났다. 우리 둘은 하늘을 보며 이야기하였다.

환자는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빨리 나서서 다시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고, 내 아이보다 두 살 더 많은 환자와 대화를 하면서 가슴

속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떤 말이 가장 위로가 되나요?”라고 물어보자,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요. 그 말이 저한테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환자의 두 손을 나는 꼭 잡아주었다. 눈물을 참으려고 하는 환자를 보며 “눈물이 날 땀 울어도 돼요. 참지 말고 울어요.”라고 말하니, 아프기 전까지 성실히 죄지은 것 없이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하필 나여야 하는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며 마음 속 이야기를 하였다. 첫 만남에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를 불러주고 다음 만남 시 호스피스병동에 있는 정원으로 산책하러 가기로 하였다.

두 번째 만남에서 환자와 병실 밖 정원으로 산책을 나왔다. 환자복 입은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어 지인들의 방문을 거부했던 환자는 첫 번째 만남 이후 마음을 열고 병동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어머니 역시 환자가 웃기도 하고 침대로 병실 밖에 나와 산책을 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기뻐하였다.

정원에서 환자와 나눌 이야기들을 어색하지 않게 풀어내기 위해 색종이로 동서남북을 접어

그곳에 적혀 있는 물음에 답하는 게임을 준비하였다. 색종이에 적혀 있는 물음을 모두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동안 어머니와 딸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소리 내어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가장 하고 싶은 것이란 물음에 “두 발로 뛰고 싶어요. 두발로 뛰어서 바닷가 모래사장을 비맞으며 뛰고 싶어요.”라며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고, 산책을 마치고 바닷가 여행도의 눈에 보기도 하였고, 생각과 감정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소리 내어 표현하기로 하였다.

환자의 목욕을 준비하는 날, 환자는 소변 줄을 꽂고 있었고 복수가 차 있었다. 목을 조금만 움직여도 아파해서 누워 있어야만 했다. 많이도 망설였던 목욕이라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들지 않게 하려고 주일학교 여름 신앙학교 주제곡 ‘주님 달링, 주님 허니’ 동영상을 준비하여 목욕하는 내내 틀어 놓고 울동도 하였다. 환자는 웃으며 손동작을 같이 따라 하며 편안하게 목욕을 할 수 있었다.

환자는 영화 ‘비긴 어게인’을 보고 싶었지만 입원하게 되어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호스피스병동에 있는 회의실을 소극장처럼 꾸미고 근처 영화관에서 팝콘과 콜라를 사서 와 영화관의 느낌을 보냈다. 환자는 추후 상기된 얼굴로 끝까지 관람한 후 마치 진짜 영화관에 온 것처럼 들떠 영화 후일담을 나누었다.

집에 가고 싶어 했던 환자는 퇴원하게 되어, 봉사자들은 가정 방문을 갔다. 편안한 모습이었고 가정에서 침상 목욕을 해주었다.

친구들을 만나면 반갑고 좋은데 가고 나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아프기 전에는 칠십까지 살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은 서른 살까지 살고 싶다면 말끝을 흐리는 모습도 보였다. 기도와

성가를 그녀의 엄마와 함께 하였다.

두 번째 가정 방문을 갔을 때 환자는 발이 많이 부어있어 고통이 심해 신음을 내고 있었으며 무호흡 상태가 반복되었다. 참고 배려심 많았던 환자가 계속 엄마를 부르는 모습이었다. 봉사자가 발마사지를 해주자 잠시 편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어머니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 병원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것은 안내하였다.

가정 방문을 간 후 이들이 지난 후 환자는 다시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였고, 이전보다 잠자는 시간이 길어졌다. 어머니는 봉사자를 보자 환자가 좋아했던 노래 악보를 부탁하였다. 수척해진 어머니의 고단함과 처절함이 느껴져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어머니는 딸에게 “엄마가 자주 보게 집에서 가까운 곳에 너의 집이 있으면 좋겠어.”라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 해주었고 환자는 본인의 생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으면 알아차리고 있었다.

11월 17일, 휴대전화에 환자의 임종 소식이 남겨져 있었다. 서둘러 봉사자들과 연락하여 문상하였고 입관에 참여했다. 입관에서 꽃으로 단장한 환자는 천사 같았다. 주일학교 학생이 추모 글을 읽어 주었고, 환자가 좋아했던 성가가 들렸다.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환자가 왜 이 성가를 좋아했는지 알 것 같아 눈물이 났다. 장례미사에서 교사의 노래와 교사의 기도 마지막 단락을 부르며 환자를 보내주었다.

“주여! 마지막으로 내가 받을 최대의 보상은 여기에서가 아니라 저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소서. 이 땅 위에서 당신을 빛낸 공로가 내가 가르친 학생들과 함께 나는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리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